

‘아시아 문화유산’ 출판물의 키워드 분석: 서구적 관점에서 아시아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론*

조민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고일홍***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그동안 아시아를 바라보는 서구 시각의 검토가 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본고는 실증적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이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새로운 방법론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아시아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서양 출판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아시아 문화유산 관련 서양 출판물에 등장하는 아시아 지역단위의 현황과 관련 키워드를 파악하였다. 둘째,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 대해서도 아시아 문화유산 관련 서양 출판물에 등장하는 연관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셋째, *The Routledge Handbook of Heritage in Asia*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구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였다. 이렇듯 분석단위와 접근방식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아시아를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에 대한 시사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파일럿 스터디인 만큼, 이와 같은 연구 방법론의 전망도 모색해 보았다.

주제어 아시아, 문화유산, 키워드, 분석, 서구적 관점

I. 들어가며

“아시아는 유럽이 자기를 표상하고 유럽을 다른 지역과 구별하기 위한 용어였다. 아시아란 무엇보다도 유럽이 자기를 규정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었다”(사카이, 2006: 31). ‘아시아’는 이렇듯 타자에 의해 규정된 개념이자, 타자의 필요에 따라 변화해 온 개념이다. 오늘날 아시아인 스스로가 아시아를 규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시아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는 아시아의 자기규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6A3A02065553).

** 제1저자

*** 교신저자

아시아를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은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왔다.¹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아시아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계보학적 이해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까지 다른 연구들에서는 담론 중심의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고,² 실증적 분석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시기가 20세기 전반으로 한정된 경향이 있었다.³ 따라서 아시아를 바라보는 오늘날 서구의 관점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이러한 서구의 현재 관점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서양 출판물의 키워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유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20세기 초 국제법의 맥락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그것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노력들이 초국가적 기관 단위에서 수행되는 만큼,⁴ 문화유산 관련 제도나 인식이 세계의 시각을 — 더 정확하게는 문화유산 담론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서구의 시각을 — 반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판물은 지식 생산을 통해 지배권력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기에, 서구 출판물에 반영된 아시아 인식은 서구에서 용인하고 유통되고 있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출판물 저자의 국적이나 소속기관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로 출간된 출판물인 경우에는 서구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⁵

¹ 예를 들어, 김정동(2011), 이강원(2011), 이진일(2012) 등의 논고가 있다.

² 예를 들어, 이강원(2011).

³ 예를 들어, 이진일(2012).

⁴ Cultural heritage was first addressed in international law in 1907 and a body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texts for its protection has been developed by UNESCO and other intergovernmental organisations since the 1950s. The 1954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of UNESCO (henceforth the “Hague Convention”) is the earliest of these modern international texts and was developed in great part in response to the destruction of looting of monuments and works of art during the Second World War. (Blake, 2008: 61)

⁵ 물론 이와 같은 저자들의 판단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일례로 서양 출판물이 어떻게 서구의 지배권력을 재생산하는지를 검토한 다른 연구에서는 ‘소속기관’을 서구와 비서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Noda, 2020: 7). 그러나 본 연구는 파일럿 스타디로서, 최대한 많고 다양한 데이터를 수합 및 분석하여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의 과제인 만큼, 영어

데이터 분석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아시아 문화유산 관련 서양 출판물의 제목을 분석하여,⁶ '아시아 지역단위'와 연관된 키워드의 양상을 '내용 클라우드' 및 '시맨틱 네트워크'를 통해 시각화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파일럿 스티디인 관계로, 몇몇 아시아 국가를 선정하여 그 국가들과 연관된 키워드의 양상도 '내용 클라우드' 및 '시맨틱 네트워크'를 통해 시각화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시아의 문화유산을 다룬 대표적인 저서인 *Routledge Handbook of Heritage in Asia*의 텍스트 전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서구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겠다.

문화유산 담론 속에서 아시아의 지역단위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또한 어떠한 연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시아 개념사 연구에 기여하는 한편, 시맨틱 분석을 도입하여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소개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II. '서구가 바라보는 아시아' 분석: 새로운 방법론

출판물을 의사소통의 매체로 간주하고, 그것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객관적·체계적·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이 '내용분석'이다. 학술 출판물에 대한 내용분석을 진행하여 해당 학문분야의 연구경향을 효과적으로

로 출간된 모든 출판물을 '서구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비영어권 연구자들이 영어권 학회지에 논문을 성공적으로 게재하기 위해, 심사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영어권 학계의 시각이나 담론이 얼마나 많이 개입하게 되는 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수의 연구가 보여 주듯이(Aalbers, 2004: 참고문헌 참고), 영어로 출간된 출판물은 현재 서구 내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영어권 세계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영어권 서구의 시각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의 분석을 기대하겠다.

⁶ 학술 출판물에서 제목은 내용에 대한 명료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별도의 주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제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출판물의 성격과 내용을 잘 전달하는 데이터로 간주할 수 있기에(고일홍, 2020: 196-197), 본 연구에서는 출판물의 제목을 출판물 키워드의 프록시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는 주제가 명시된 논문과 별도의 주제가 없는 저서를 동일한 선상에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표 1 '유엔 아시아 지역분류체계'의 아시아 지역단위 및 해당 국가

| '유엔 아시아 지역분류체계'의 아시아 지역단위 | 해당 국가 |
|------------------------------|---|
| 중앙아시아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 동아시아 | 중국, 홍콩, 마카오, 북한, 일본, 몽골, 한국 |
| 동남아시아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
| 남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이란,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
| 서아시아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키프로스, 조지아,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

파악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⁷ 이 방법론은 아시아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에 반영된 서구의 시각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내용분석에는 두 종류가 있다. '계량적 내용분석'에서는 특정 단어 혹은 구절의 '등장 빈도'를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기는 반면, '정성적 내용분석'은 텍스트로부터 핵심적 일관성과 의미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동반한다(고일홍, 2020: 200-202).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 셋은 276편의⁸ 출판물 제목으로⁹ 이루어져 있다. 이는 '유엔 아시아 지역분류체계(United Nations geoscheme for Asia)'에서 규정하는 아시아 지역단위 다섯 곳(표 1 참고)이 키워드로 등장하는 문화유산 관련 출판물을 전수 조사하고, 일부 아시아 국가가 키워드로 등장하는 문화유산 관련 출판물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만약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련 출판물 전수 조사를 하였다면,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계량적 내용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유의미한 작업이 되었을 것이나, 본 파일럿 스터디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대

7 예를 들어, Jackson et. al.(2006), Schwekendiek(2020), 고일홍(2020).

8 276편의 출판물의 출판연도 범위는 1972년부터 2021년까지이다. 참고로 '세계문화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은 1972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2008년도부터 출판물의 증가 추세가 확인해지며,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가장 많은 출판물(각각 21편)이 확인된다.

9 출판물의 제목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각주 6)에서 설명하였다.

신 ‘정성적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정성적 내용분석에는 다양한 전략이 존재한다. 첫째, 전통적인 방식으로 텍스트의 데이터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내리는 방법이 있다(Prasad, 2019). 둘째, 텍스트 내에서 특정 단어가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통계적 지표(TF-IDF)를 활용하여 단어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시각화하는 ‘내용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Cyram, 2017). 셋째, 개념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의미를 찾아내는 ‘시맨틱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III. ‘서구가 바라보는 아시아’ 파악을 위한 세 종류의 정성적 내용분석

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과정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의 데이터 셋은 총 276편의 출판물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JSTOR과 Google Scholar 서치 엔진을 활용하여, 먼저 ‘유엔 아시아 지역분류체계’의 각각의 아시아 지역단위들(‘Central Asia’, ‘Eastern Asia’, ‘South-eastern Asia’, ‘Southern Asia’, ‘Western Asia’)과 ‘heritage’를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아울러 각 지역단위에 해당되는 일부 국가들(Afghanistan, Armenia, Azerbaijan, Bahrain, Bangladesh, Bhutan, Brunei, Burma, Cambodia, China, East Timor, Hong Kong, India, Indonesia, Iran, Iraq, Japan, North Korea, South Korea, Thailand)에 대해서도 ‘heritage’를 함께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서(편저서 포함) 139편, 논문 133편의 제목을 추출하였고,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학술회의 발표집 2편과 학위논문 2편의 제목을 추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자연어처리기법을 활용한 넷마이너(NetMiner) 4.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키워드를 자동적으로 추출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일련의 데이터 클리닝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유의어’를 설정하여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하나의 키워드로 추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World Heritage Site’, ‘World Heritage Sites’, ‘World Heritage List’, ‘World Heritage Site Case Study’를 모두 ‘World Heritage’의 유의어로 설정하여, ‘World Heritage’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외어’의 경우에는 출판물의 제목에 흔히 사용되지만 출판물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단어들(예를 들어, ‘possibility’, ‘introduction’, ‘discussion’, ‘case’ 등)을 제외어로 설정하였다.

2. 아시아 ‘지역단위’ 문화유산 관련 키워드 분석

아시아의 ‘지역단위’ 관련 키워드의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시아의 문화유산 관련 출판물에서 각 지역단위가 언급되는 비중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체 데이터 셋을 대상으로 ‘내용 클라우드’를 생성하였는데, 이때 개별 국가명은 제외어로 선정하여 지역단위가 부각되도록 하였다. TF-IDF 지표를 이용해서 각 키워드의 중요도를 측정하고, 폰트 크기를 통해 그 상대적 중요성을 시각화하는 이 방법을 통해 생성된 내용 클라우드의 모습은 그림 1과 같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Cultural’, ‘Cultural Heritage’, ‘World Heritage’와 같은 키워드들의 중요도가 너무 높은 관계로, 아시아 지역단위들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추출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세 개의 키워드를 제외어로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내용 클라우드를 다시 생성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 내용 클라우드를 보면 ‘Southeast Asia’와 ‘South Asia’가 가장 높은 빈도로 언급되는 지역단위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East Asia’와 ‘Central Asia’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지역단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아울러, ‘Western Asia’는 하나의 지역단위 개념으로서는 문화유산 담론에서 비중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시맨틱 네트워크’의 생성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유산 관련 출판물에서 아시아의 지역단위와 연관된 키워드들의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전체 출판물 데이터에 대한 시맨틱 네트워크의 생성에 있어서,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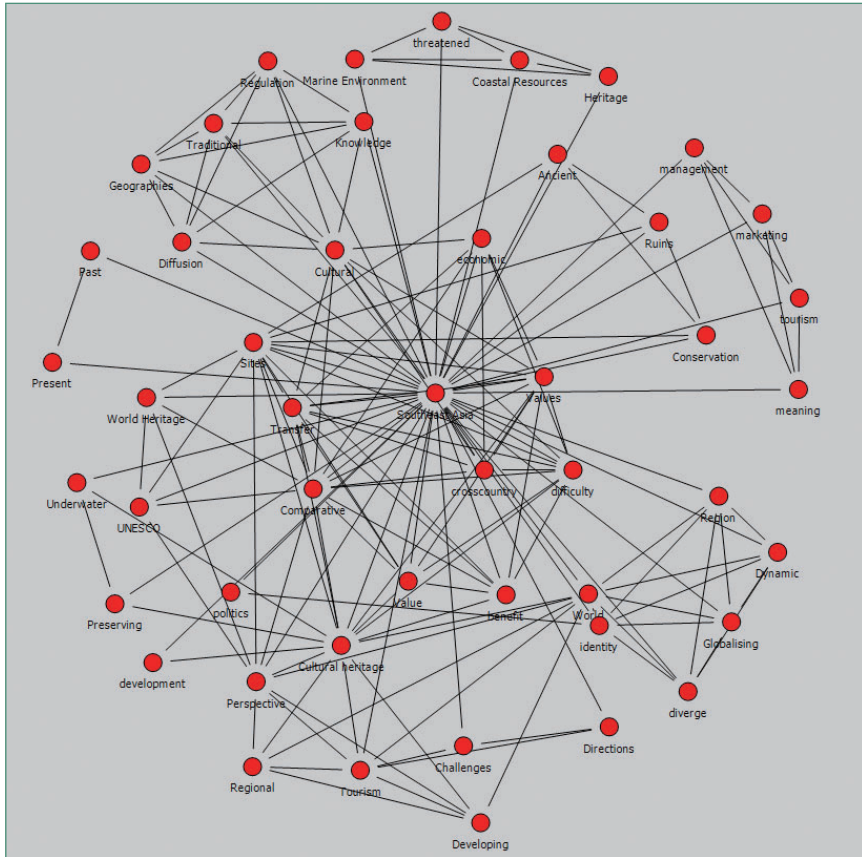


그림 4 'Southeast Asia'의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생성한 네트워크

는 시맨틱 네트워크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각각 지역 단위와 관련된 모든 키워드의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지역단위별로 연관 키워드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이 경우에는 모든 연결고리들을 나타내기 위해 '링크 빈도 임계치' 값을 1로 설정하였다. 이 결과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Southeast Asia' 문화유산 관련 키워드의 네트워크(그림 4)와 'South Asia' 문화유산 관련 키워드의 네트워크(그림 5)를 보면, 우선 두 지역 모두 식민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South Asia'의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nation building', 'colonial heritage', 'political c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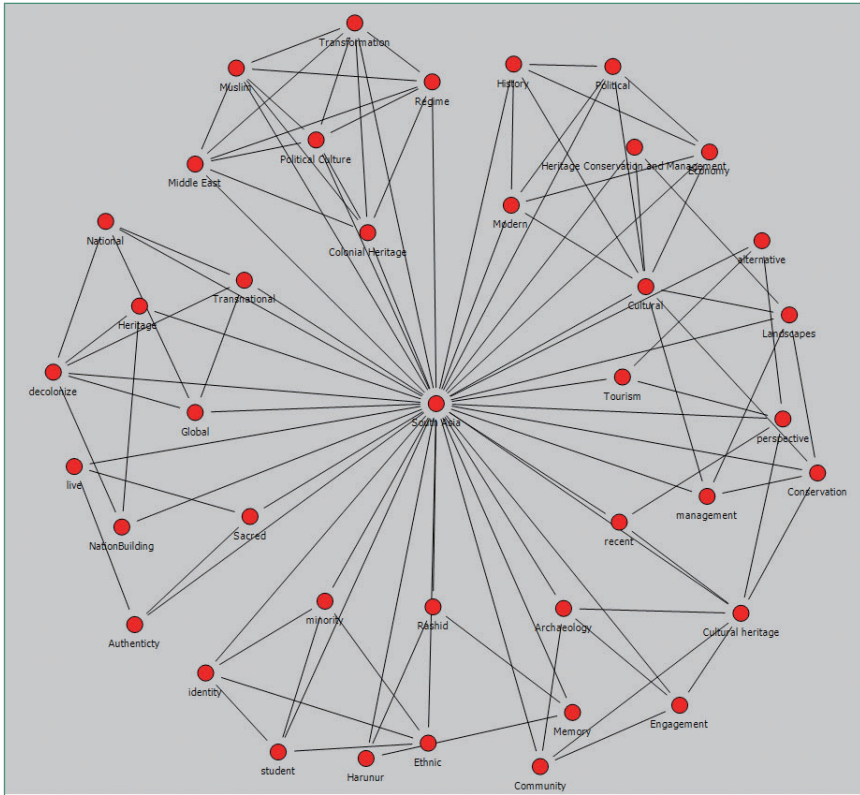


그림 5 'South Asia'의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생성한 네트워크

ture', 'memory'와 같은 키워드들이 'Southeast Asia'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Southeast Asia' 네트워크에서는 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 관련 키워드들이 — 예를 들어, 'value', 'benefit', 'marketing', 'preserving' — 주목된다. 참고로, 'Central Asia' 문화유산 관련 네트워크(그림 6)에서도 'heritage politics', 'memory'와 같은 키워드들이 보인다.

한편, 'Eastern Asia'와 'Western Asia'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단위 용어를 포함하는 문화유산 출판물 데이터 셋이 너무 작은 관계로 유의미한 결과를 생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두 지역단위의 경우에는 소속 국가들의 문화유산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종합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때 키워드 시각화의 방법으로는 시맨틱 네트워크 대신 내용 클라우드를 선택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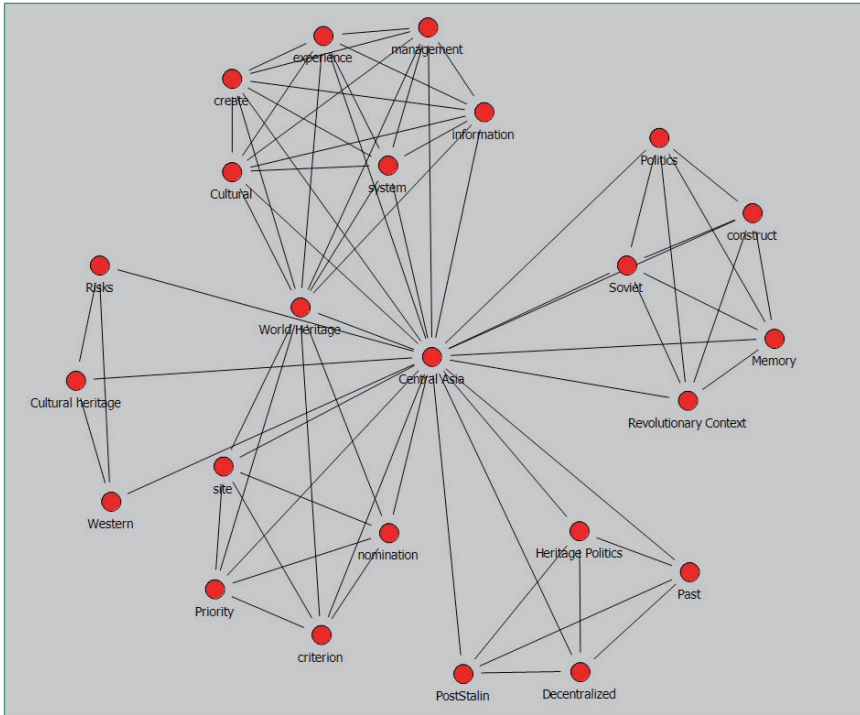


그림 6 'Central Asia'의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생성한 네트워크

다. 이는 서로 다른 국가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할 경우에는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가 아니라, 개별 국가 단위로 다수의 소규모 네트워크들이 생성되는 만큼, 전체 키워드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TF-IDF 지표를 이용해서 각 키워드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그림 7 및 그림 8과 같은 내용 클라우드가 생성되었다.

그림 7 내용 클라우드의 생성을 위해서는 'Hong Kong', 'South Korea', 'North Korea', 'Japan', 'China'의 문화유산 관련 출판물 총 60편의 제목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Eastern Asia' 소속 국가들의 경우에는 'Southeast Asia' 문화유산 관련 키워드의 특징이었던 '문화유산의 관리 및 활용'과의 강한 연관성과 'South Asia' 문화유산 관련 키워드의 특징이었던 '문화유산의 정치적 측면'과의 강한 연관성이 모두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그림 7 'Eastern Asia'에 속한 일부 국가들의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생성한 내용 클라우드는



그림 8 'Western Asia'에 속한 일부 국가들의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생성한 내용 클라우드는

'tourism', 'management', 'development', 'heritage conservation'와 'identity', 'national', 'past', 'politics', 'postcolonial'가 유사한 중요도의 키워드로 표출되었다.

그림 8 내용 클라우드의 생성을 위해서는 'Armenia', 'Azerbaijan', 'Bahrain', 'Iraq'의 문화유산 관련 출판물 총 29편의 제목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Western Asia’ 소속 국가들의 경우에는 ‘Southeast Asia’, ‘South Asia’, ‘Central Asia’, ‘Eastern Asia’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화유산 관련 키워드들이 확인되었다.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표출된 키워드들은 ‘Middle East’와 ‘conflict’이었고, ‘orientalism’과 ‘nation’ 역시 그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Eastern Asia’에 속한 국가들의 문화유산의 경우,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며, 과거기억이나 권력관계 등 정치적 이슈들이 환기되는 장을 제공하기도 함을 시사한다. 반면, ‘Western Asia’에 속한 국가들의 문화유산의 경우, ‘활용’보다는 ‘보호’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 준다.

3. 아시아 ‘국가단위’ 문화유산 관련 키워드 분석

아시아 지역단위로 관련 문화유산 출판물의 키워드 분석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부각되었다. 이 중에서 ‘Southeast Asia’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관리와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미래 지향적인 관점이 강한 반면, 문화유산의 정치적 측면을 ‘되돌아보는’ 관점은 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outheast Asia’에 속해 있으며, 크메르(Khmer) 문명의 영광,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 크메르 루지(Khmer Rouge)의 제노사이드, 그리고 유엔에 의한 통치를 경험했던 ‘Cambodia’ 문화유산 관련 출판물에 대한 키워드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생성된 내용 클라우드를 보면(그림 9), 서로 연관된 개념인 ‘Angkor’와 ‘World Heritage’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war’, ‘tragedy’, ‘postcolonial’, ‘Heritage of Violence’와 같은 키워드도 확인되어, 캄보디아 문화유산 관련 출판물에는 — ‘Southeast Asia’ 단위의 문화유산 담론에서와는 달리 — 이 측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링크 빈도 임계치’ 값을 1로 설정해서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가 그림 10과 같아서, 캄보디아의 문화유산 담론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 유적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9 'Cambodia'의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생성한 내용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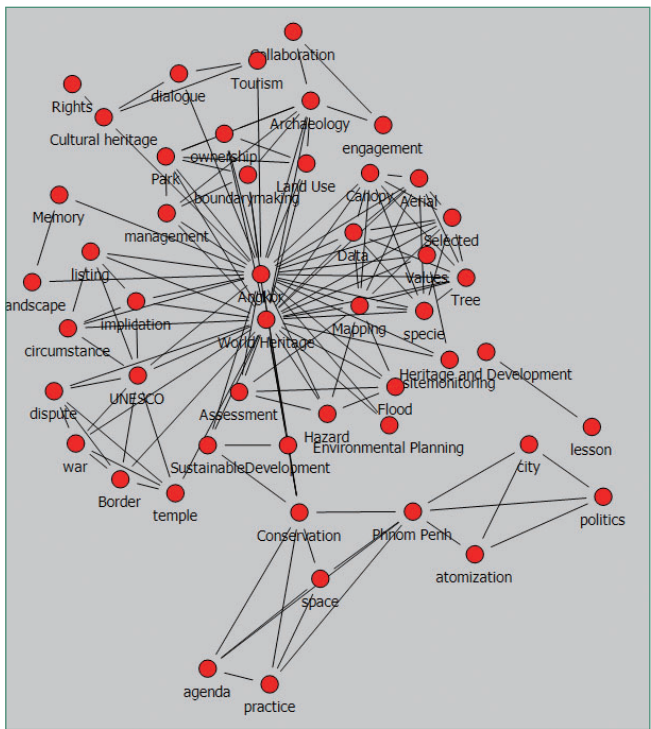


그림 10 'Cambodia'의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생성한 네트워크



그림 11 ‘Afghanistan’의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생성한 내용 클라우드는

한편, 국가별로 볼 때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에 대한 출판물도 최근 들어 활발히 발간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이 유엔 아시아 지역분류체계에서 ‘Southern Asia’에 포함되어 있고, ‘Southern Asia’의 경우에는 이 지역 단위 키워드와 관련된 문화유산 출판물만을 검색한 관계로,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 속에서는 ‘Southern Asia’에 관한 서구의 인식을 문화유산을 통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자료를 참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Afghanistan’ 문화유산 관련 출판물에 대한 키워드 분석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생성된 내용 클라우드를 보면(그림 11), ‘Archaeology’와 ‘Cultural Heritage’의 중요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특정 유적(Angkor)과 ‘World Heritage’의 중요도가 높았던 캄보디아의 양상과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현재의 정치적 맥락 속에서 특정 문화유산을 ‘World Heritage Site’로 홍보·관리·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War Ravaged’이나 ‘Post conflict’와 같은 키워드의 존재가 이러한 정치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링크 빈도 임계치’ 값을 1로 설정해서 생성한 시맨틱 네트워크(그림 12)를 보면 캄보디아의 사례에 비해 더 분산된 양상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위협과 연관된 키워드들이 — ‘War Ravaged’, ‘P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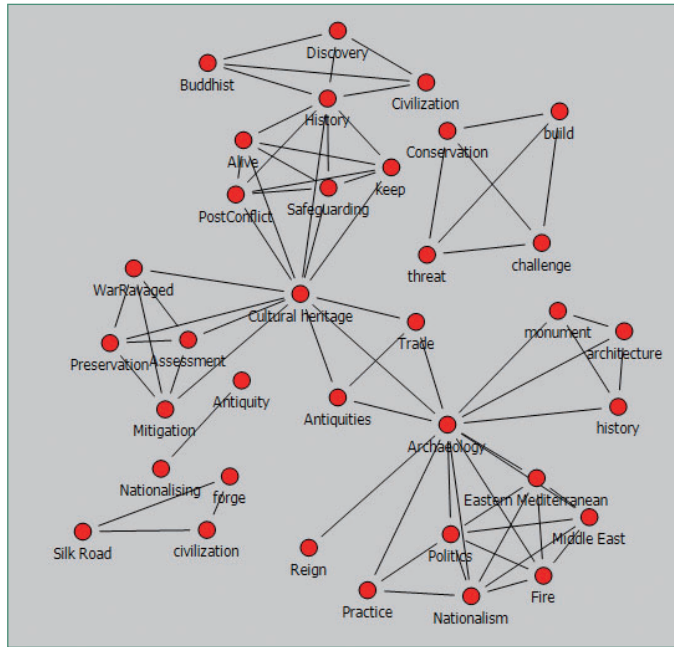


그림 12 'Afghanistan'의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여 생성한 네트워크

'conflict', 'threat', 'mitigation' 등 — 네트워크의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키워드 노드들과의 연결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와 아프가니스탄의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4. 아시아 문화유산 관련 텍스트 분석

The Routledge Handbook of Heritage in Asia(Daly & Winter, 2012)는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 및 사회변화의 맥락 속에서 아시아 문화·자연유산의 보존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출판물이다. 이 책은 2009년 싱가포르 국립대의 아시아연구소(Asia Research Institute)에서 개최되었던 학술대회에서 비롯되었다. 아시아 문화유산의 모든 측면들을 다루었던 이 학술대회에는 100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했었는데, 필진들의 학술대회 당시의 소속을 보면 총 27개의 기관 중 18개(2/3)가 서양 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ibid: 1-8). '2/3'라는 이 수치는 아시아

문화유산 담론이 여전히 서양 연구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서구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이 책의 편집자 및 필진들은 ‘아시아’의 유산을 포괄하는 기획이 아시아라는 지역 단위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과도하게 야심찬’ 기획이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아시아의 유산을 살펴봄에 있어서 아시아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 대신 아시아 개념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 유연성, 역사적 복잡성을 인지하고 수용하였다. 그리하여 이 책에서는 아시아 전체를 정의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로, 사실은 이러한 정의 내림이 불완전한 지식의 적용, 정치적인 도용,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론적 틀 간의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특히 아시아에 대한 그간의 개념 규정 과정이 일반화와 의도된 의미투영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ibid: 14). 또한 특정한 맥락들 속에서 지리학이 정치적 편의주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온 관계로 아시아의 경계가 늘 변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모든 필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아시아의 유산’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매우 독특하면서 강한 연관성이 있는 아시아 지역의 두 가지 특징에 주목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첫 번째 특징은 아시아의 범위와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더라도, 이곳은 놀라운 문화적 및 자연적 다양성을 보이는 지역이며, 지구상 인구의 40% 정도가 거주하는 이곳의 사람들이 매우 독특한 삶의 방식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속 점유 마을들’이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및 물리적 변화들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경제개혁도 수억 명의 아시아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유산’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특징들로 인해, 학계 담론에서 그동안 통용되었던 근대적이고 과학적인 유산 관리 방법들만을 고수하면 안 되며, 아시아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경제개혁 속에서도 지속되어 온 다양한 전통적이며 대안적인 유산 관리의 방법들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이 제시되었다(ibid: 15).

즉, ‘아시아의 유산’에 대한 연구, 관리, 활용과 관련해서 ‘보존’에 대한 아시아적 철학과 실천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oi An Protocols For Best Conservation Practice in Asia”(Engelhardt and Rogers, 2009)

를 언급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공포된 이 협약에서는 ‘보존’의 개념을 자연환경과 삶의 양식이 매우 다양한 ‘아시아적 특수성’ 속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입각하여 아시아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문화·자연유산들의 ‘진정성(authenticity)’을 측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I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아시아의 문화유산 관련 서구 출판물 중 ‘유엔 아시아 지역분류 체계’에서 규정한 아시아 지역단위들이 키워드로 등장한 출판물을 분석한 결과,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와 ‘남아시아(South Asia)’가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지역 단위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Eastern Asia)’는 아시아의 문화유산 담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지역이 아니었다. 이러한 양상은 각 지역단위 개념들의 형성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지역단위의 경우, 20세기 초반에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등장하였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 일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공간으로서, 영국의 입장에서는 ‘동남아시아 사령부(SEAC)’ 구축을 통해 유의미한 실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SEATO(South East Asia Treaty Organization)와 ASEAN이 설립되면서 동남아시아는 매우 안정적이고 뚜렷한 실체를 가진 지역단위가 되었다. 또한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단위의 연구가 정치학 분야에서 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Emmerson, 1984). ‘남아시아(South Asia)’ 역시 20세기 초반에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1940~1970년대에는 국제기관이나 서구의 정책연구소들에서도 하나의 지역단위로 규정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가 설립되면서 이 지역단위는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었다(Mohammad-Arif, 2014).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제도나 행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연구에서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및 ‘남아시아(South Asia)’ 지역단위들이 중요하게 등장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바다.

반면, ‘동아시아(Eastern Asia)’는 그 실체가 매우 혼란스러운 지역단위다. ‘유

엔 아시아 지역분류체계’에서는 대한민국, 북한, 일본, 몽골, 홍콩, 마카오,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단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단위가 과연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존재한다(Jones and Michael, 2007). 또 다른 정의에서는 ‘East Asia’를 ‘Northeast Asia’와 ‘Southeast Asia’를 포괄하는 지역단위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EAEC(East Asian Economic Caucus)를 제안한 이후부터 개념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여긴다(Terada, 2010). 주지하다시피 이 틀 안에서는 ‘Northeast Asia’가 ‘유엔 아시아 지역분류체계’의 ‘Eastern Asia’와 유사한 개념인 셈이다.

그런데 사실 ‘동북아시아(Northeast Asia)’도 명확히 규정되는 지역단위는 아니다. 이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미국의 역사학자 커너(Robert Kerner)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 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할 목적으로 ‘Northeast Asia’라는 지역단위를 고안해 냈다(Kotkin, 1997). 이후 ‘Northeast Asia’는 이와는 다른 지리적 범주를 가진 개념으로 활발히 — 그것도 소위 동북아시아 지역의 연구자들에 의해 — 사용되었으며, 흔히 몽골을 제외한 한중일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예를 들어, Calder and Ye, 2010). 바로 이러한 개념의 모호함 때문인지 아시아의 문화유산 담론에서는 ‘Eastern Asia’나 ‘Northeast Asia’보다는 개별 국가 단위로 논의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아시아의 문화유산 담론에서 ‘서아시아(Western Asia)’ 지역단위보다는 ‘Middle East’라는 키워드가 두각을 더 나타낸 점이 매우 흥미롭다. ‘Western Asia’ 개념은 20세기 중반에 ‘Middle East’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적 유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으며, 구소련의 중앙아시아 지역과 범 중동 지역이 이 지역단위에 포함되어 있다. 서아시아 지역단위의 독특한 특징을 말한다면 세 번이나 제국 붕괴의 무대였다는 점이 되겠다(Liven et al., 2017). 그 외에는 하나의 통합적인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워서인지, 이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논의는 ‘Middle East’이라는 지역단위로 이루어지거나, 개별 국가 단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 아시아 지역분류체계’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나, 위와 같은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과연 이 분류체계가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화유산 담론의 양상으로 보면, 이 분류체계에

서 규정하고 있는 ‘Southeast Asia’나 ‘South Asia’와 같은 지역단위들은 유의미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Eastern Asia’나 ‘Western Asia’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위의 표 1 참고). 이를 위해 향후 ‘유엔 아시아 지역분류체계’의 성립과정을 추적하는 작업과 더불어, 이와 같은 분류체계가 세계 문화유산의 지정 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분석을 통해 각 지역단위에 대한 서구의 인식에도 접근하고자 했다. 물론 파일럿 스터디인 만큼 데이터의 제약이 있었고, 따라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나타난 패턴들이 서구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이 주제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시아의 모든 지역단위들이 정치적 병합이나 식민지화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담론을 보면 이러한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지역단위 별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남아시아, 동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 많이 확인된 반면,¹¹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그러한 키워드들이 잘 포착되지 않았다. 이러한 패턴이 학문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각 지역단위에서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대응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The Routledge Handbook of Heritage in Asia*에 대한 내용분석의 결과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책의 집필진은 우선 ‘아시아’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유연하며 역사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인 만큼, 아시아에 대한 핵심적인 정의를 내리기를 회피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아시아 전체를 정의하고자 할 경우에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진실’들을 전하였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그 정의내림은 불완전한 지식에 기반할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의도를 포함할 수밖에 없으며, 정의내림의 과정이 곧 서로 다른 존재론적 프레임들 간의 충돌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11 ‘nation building’, ‘colonial heritage’, ‘political culture’, ‘memory’, ‘heritage politics’, ‘identity’, ‘national’, ‘past’, ‘politics’, ‘postcolonial’, ‘Middle East’, ‘conflict’, ‘orientalism’, ‘nation’ 등.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의 문화유산'이라는 렌즈를 통해 타자에 의해 이루어진 아시아 지역단위 구분의 타당성과, 각각의 지역단위들에 대한 서구의 인식,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는 행위에 대한 서구의 시선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사용했던 방법론인 자연어처리기법을 활용한 키워드의 추출 및 내용 클라우드와 네트워크를 통한 시각화가 위의 주제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접근 방법을 다른 연구분야의 아시아 관련 연구에도 적용하여, 이번 연구를 통해 확보한 시사점을 검증, 확장하고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투고일: 2021년 6월 15일 | 심사일: 2021년 7월 14일 |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30일

참고문헌

- 고일홍. 2020. "북한의 발해 연구사 서술을 위한 새로운 접근: 북한 학술지 목록화 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내용분석." 『인문논총』 77권 4호, 193-237.
- 김경동. 2011. "아시아란 무엇인가? 인식과 정체의식." 『아시아리뷰』 1권 1호, 37-58.
- 사카이 나오키. 2006. "염치없는 국민주의." 『일본연구』 6권, 29-52.
- 이강원. 2011. "근현대 지리학의 아시아 연구 경향과 새로운 의제들." 『아시아리뷰』 1권 1호, 111-144.
- 이진일. 2012. "서양 지리학과 동양인식: 20세기 전환기 동아시아를 지리적으로 위치짓기." 『아시아문화연구』 26집, 91-120.
- Aalbersm, M. B. 2004. "Creative Distruction through the Anglo-American Hegemony: A Non-Anglo-American View on Publications, Referees and Language." *Area* 36(3), 319-332.
- Blake, J. 2008. "On Defining the Cultural Herita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49(1), 61-85.
- Calder, K. and M. Ye. 2010. *The Making of North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yram. 2017. *NetMiner 4.0 Semantic Network Analysis*.

- Daly, P. and T. Winter, eds. 2012. *Routledge Handbook of Heritage in Asia*. London: Routledge.
- Emmerson, D. K. 1984, "'Southeast Asia': What's in a Name?."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15(1), 1-21.
- Engelhardt, R. A. and P. R. Rogers. 2009. "Hoi An Protocols For Best Conservation Practice in Asia: Professional Guidelines for Assuring and Preserving the Authenticity of Heritage Sites in the Context of the Cultures of Asia" (UNESCO Office of the Regional Advisor for Culture in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ESCO.
- Jackson, A., R. Harris, L. Hepple, A. Hoare, R. Johnston, K. Jones, and P. Plummer. 2006. "Geography's Changing Lexicon: Measuring Ddisciplinary Change in Anglophone Human Geography through Journal Content Analysis." *Geoforum* 37(4), 447-454.
- Jones, D. M. and M. L. R. Smith. 2007. "Constructing Communities: The Curious Case of East Asian Regionalis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33(1), 165-186.
- Kotkin, S. 1997. "Robert Kerner and the Northeast Asia Seminar." *Acta Slavica Japonica* XV, 93-113.
- Levy, J. P., J. A. Bullinaria, and M. Patel. 1999. "Explorations in the Derivation of Word Co-occurrence Statistics." *South Pacific Journal of Psychology* 10(1), 99-111.
- Lieven, A. 2017. "West Asia since 1900: Living Through the Wreck of Empires." In M. Kamrava, ed. *The Great Game in West Asia: Iran, Turkey and the South Caucasus* (CRIS Summary Report 17), 3-4. Qatar: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Regional Studies, Georgetown University in Qatar.
- Mohammad-Arif, A. 2014. "Introduction. Imaginations and Constructions of South Asia: An Enchanting Abstraction?" *South Asia Multidisciplinary Academic Journal* 10, 1-27.
- Noda, O. 2020. "Epistemic Hegemony: The Western Straitjacket and Post-colonial Scars in Academic Publishing." *Revista Brasileira de Política Internacional* 63(1), e007.
- Prasad, B. D. 2019.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hy Is It Still a Path Less Taken?"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20(3).

- Schwekendiek, D. J. 2020. "Trends in Korean Studies: A Content Analysis of Korea-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the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1990-2015."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Online (<https://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2233865920934954>)(검색일: 2021. 1. 5.).
- Terada, T. 2010. "Constructing an 'East Asian' Concept and Growing Regional Identity: From EAEC to ASEAN+3." *The Pacific Review* 16(2), 251-277.

Abstract

Keyword Analysis of Publications on ‘Asian Cultural Heritage’: A Method for Interpreting Western Perspectives on Asia

Minjae Zoh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Ilhong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The way in which Asia has been perceived by the West has predominantly been discourse-based. This article approaches the topic of Asia through empirical data analysis. New methods of data analysis were applied to assess what it can reveal in terms of what has been published in the West regarding Asia’s heritage. First, recent and frequently appearing keywords were grasped within what has been published by Western publishers. Second, a more in-depth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keywords that frequently appear in published materials for selected Asian countries regarding their heritage. Third, the Routledge Handbook of Heritage in Asia was examined to gain a broad idea of Western approaches and perspectives regarding Asia and its heritage. Through this pilot study, our partial aim was to test out this research method and its outcome.

Keywords | Asia, heritage, keyword, analysis, Western perspective